

		보 도 자 료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 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9. 5. 21(화) 총 8매(본문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오성익, 사무관 임석홍, 주무관 강대식 • ☎ (044) 201-3450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구종원, 팀장 권순구, 주무관 오인숙 • ☎ (02) 2133-2243 	
	경기도 공공택지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이재영, 팀장 고태호, 주무관 정현주 • ☎ (031) 8008-2391 	
	송파구 교통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허한양, 팀장 최낙연, 주무관 박상희 • ☎ (02) 2147-3135 	
	성남시 교통기획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김동찬, 팀장 김성남, 주무관 김환수 • ☎ (031) 729-2473 	
	LH 도시사업처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장 고희권, 부장 임봉철, 차장 성재모 • ☎ (055) 922-3740 	
	SH 마곡위례사업처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장 김익성, 부장 김주완 • ☎ (02) 3410-7684 	
보 도 일 시		2019년 5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지자체-LH·SH 맞손, 정상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 이번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명문화한 것이다.
- 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계·건설·운영 등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트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LH·SH를 비롯하여 경기도·송파구·성남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 협약 서명자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송파구 부구청장, 성남시 부시장, LH 스마트도시본부장, SH 도시공간사업본부장

○ 이번 MOU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

□ 협약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 중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고,

○ 서울특별시는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추진하며,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추진 중인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 “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위례 트램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강대식 주무관(☎ 044-201-3450), 서울특별시 오인숙 주무관(☎ 02-2133-2243), 한국토지주택공사 성재모 차장(☎ 055-922-3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례 트램 사업개요 * 광역교통대책 기준('14.5월)

- (사업 주체 · 규모) 서울특별시, 본선 5.44km, 정거장 12개소 등
- (사업비) 총 1,800억원(추정)

※ 사업비, 노선도 등 세부 내용은 트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

□ 추진 경과

- 광역교통대책에 포함('08.3)됨에 따라, 서울시를 민자사업 주무관청으로 결정('08.9)하고, 타당성 조사(LH, '13.7~'14.5) 등 수행
- 지자체 협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트램 사업계획(안) 확정('14.5)
-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민자 부적격 판정('18.7)
- 사업방식 변경(민자→공공)을 통해 지속 추진하기로 잠정 협의('18.7)
-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에서 예타 미시행 결정 및 발표('18.12)
- 중앙투자심사(행안부 진행중)

□ 향후 일정

- '19.7월 ~ :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 추진

참고 2

위례 트램 노선도

* 광역교통대책 기준('14.5월)



※ 노선도는 계획 및 설계(서울시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3

위례 트램 상상도



※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송파구 ·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협약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라 한다)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트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신교통수단 위례선(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사항)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아래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적극 협력한다.

- 가.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전사항 중재 및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총괄한다.
- 나.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다.
- 다. 경기도,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통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 및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한다.

라. 성남시는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인허가) 등 트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트램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은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마. LH는 시행 중인 트램 사업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 또한, LH·SH는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되 부담금액·부담시기 등 세부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트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 간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가 이를 중재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관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해제·해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6조(기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토지정책관
김규현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부구청장
안준호

부시장
이한규



스마트도시본부장
조현태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